



〈회사개요〉

상 호 : 한국통신(주)
 대표이사 : 方 義 錫
 본사·공장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8-3
 주요제품 : 비디오 폰,
 도어 폰,
 너스 콜,
 인터폰,
 HA System,
 자본금 : 1억 2,000만원
 종업원 : 125명
 설립일 : 1980. 3. 1

통화만 하던 시대에서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로



高 星 郁
 한국통신(주) 상무이사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폰 시스템 등 다기능 비디오 폰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통신(주)을 찾았다. '80년 3월에 설립, 통신기기산업에 대한 애착심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오늘날 각종 통신기기를 완전국산화하는데 성공,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포함 연평균 성장률 167%라는 신기원을 이룩하여 업계 최고의 신장률을 자랑하는 유망 중소기업이 되었다. 설립한지 10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동사는 현재 자본금 1억 2,000만원, '89년도 매출액 46억원, '90년도 매출목표 124억 6,000만원의 목표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91년도에는 매출액 180억원 실현으로 통신기기산업분야에서 국내 및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에 125명의 전직원이 오늘도 열매를 맺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사의 高星郁 상무이사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을 “획기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품질의 고급화로, 수출지향화 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신장률, 최초의 품질관리 사정등급, Q마크 획득, 최소형 다기능 비디오 폰 생산공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나아갈것”이라며 기술력과 품질이 제일 중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첨단산업부문에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은 동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얼마전 첨단학과 증원 계획이 백지화된 것을 보고 무척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개발실에는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품질로 자랑할만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는 현재 비디오 도어폰, 병원용 인터폰, 아파트 인터폰, AMP, P.A시스템, 표시등, 차임벨, 정류기 등 많은 통신기기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성은 실로 대단하다.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는 한 직원은 “제품이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만 품질을 자랑하는 메이커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음을 보면 동사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충분히 반증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가 주력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비디오 폰을 들 수 있는데 동제품은 CCD(고체 촬상소자) 사용으로 도어 폰과 같은 콤팩트한 사이즈에 영상화를 갖춘 신제품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고 자랑한다. 또한 이 제품은 모니터를 통하여 낯선 방문객의 모습을 확인하며 통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성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CCD(고체촬상소자) 사용, 반영구적인 수명 큰 적외선 LED 내장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탁월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동사제품은 일본, 미국, EC, 중동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어 내수시장보다도 수출시장에 더욱 치중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중동사태로 인해 약간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해 나아가기 위해서 원가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로 세계일류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재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한다.

“창의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기와 회사를 발전시켜 복지사회로 향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동사는 전사원이 단결된 모습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高星郁 상무이사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자금수급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한다. 한국통신(주)도 10년이래 여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지만 앞으로는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지원, 신제품 개발에 대한 관련정보 및 기술지원 또한 각종 중소기업 제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점에 대한 관계당국의 세심한 협조가 있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통신(주)는 '90년대에는 KOCOM이라는 Brand Name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대신했다. 머지 않아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되길 기대하며……

